

우리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

- 문. 이과 통합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생활-

전자공학과 6013**** 권 * 원

윤리 서약

1. 나는 다른 사람의 글이나 인터넷 자료 등을 내 것처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나는 다른 사람의 글이나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하거나 인용할 때 적절한 인용 형식을 사용하고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 서명: _____ 권 * 원 _____

1. 서론

최근에 인기 있었던 ‘프로듀스 101’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중, 고등학생 나이인 101명의 소녀들이 가수가 되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 매주마다 시민들의 투표로 등수가 정해지고 최종등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김없이 떨어져 나갔다. 참가자들이 등수가 밀리게 되는 순간 느끼는 부담감과 절망은 TV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볼 수 있다. 고요한 교실에서 시험성적을 받는 순간 학생들의 희비가 갈리고 눈물과 환호성으로 나뉘는 모습은 입시라는 경쟁이 그 어떠한 다른 경쟁보다 치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뜨거운 입시경쟁 속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는 어떨까? 동남지방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 가까이 되는 학생이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족 요소 중 ‘소질과 적성개발’ 만족도는 24.2%로 최하위를 기록했다.¹⁾ 학교 내에서는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보니 방과 후 수업을 보충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즉, 학생들의 진로를 알려주고 꿈을 키워주는 수업보다는 수능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입학사정관제, 문. 이과 통합 시행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덧붙이게 되면 학생들의 상황은 막막하기만 하다. 자주 바뀌는 입시도 따라가야 하고 대외활동을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하기도 한다. 한시라도 더 입시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옳은 것인지 의문을 던지며 이 글은 곧 시행될 문. 이과 통합이 왜 학생들에게 입시 부담감을 주게 될 것인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과 방과 후 활동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느끼는 입시 부담감을 줄이고 학교생활 만족도는 높이는 동시에 학생들의 진로를 찾는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2. 문. 이과 통합의 부정적 영향

2.1 또 한 번의 수능변화

문. 이과 통합으로 수능. 내신 평가가 변화를 앞두고 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꽤 자주 바뀌어 왔다. 11년도 수능인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능문제에 EBS 교재를 70% 정도 연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수업교재로 EBS 문제집을 정규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 수업교재에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교직원생활 중 처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가르치게 되자, 당황했던 것은 교과서를 버려야 하는 것이었다. 대신 EBS(한국교육방송)에서 간행한 문제집이 주어졌다.”²⁾ 라는 전직 교사의 말처럼 EBS 교재는 수험생들을 위한 필수품이 되었다. 필자 역시 고3 때(13년도 수능생 이었다.) ‘수능특강’, ‘고득점 N제’ 등 EBS에서 발행한 문제집을 교과서처럼 이용하지 않는

1) 경상일보, “중·고·대학생들 학교생활 만족도 절반도 안 돼”,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6078>, (2017.06.02.최종검색).

2) 성광진, “EBS교재 문제풀이수업, 정상인가?”,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html?no=417753>, (2017.6.2.최종검색).

선생님들을 본 적이 없었다. 문제집도 하나 둘 씩 생겨났다. 학생들이 수능과 EBS문제집이 어떻게 연계 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학생들마다 연계를 체감하는 것도 달랐던 것이다.

대략 5개월 앞두고 있는 2018년도 수능에서는 영어영역을 절대평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치러진 6월 모의고사를 분석한 기사에 따르면 영어 1등급 비율이 작년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래 대학들이 요구하던 수시 최저등급 영역이 2개였지만 이번 수시모집에선 3개 영역 등급을 더한 것을 바탕으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짊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³⁾ 학생들이 2개영역으로 최저등급을 준비하다가 3개영역까지 늘어난다면 최저등급을 맞추기 위해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어, 영어로 최저등급을 준비하던 학생일 경우에는 국어, 영어 등급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수학, 탐구과목)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문. 이과 통합으로 바뀔 수능은 교육부에서 올해 7월에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적용 될 시기는 2021년, 아직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학생들에게 부담감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소개한 두 예시와 같이 지금까지 변화해온 수능들은 학생들에게 혼동 야기하고 입시의 부담감만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2.2 내신 절대평가의 함정

내신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는 것 역시 문. 이과 통합과정의 일부분이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대평가는 1~9등급을 각 비율로 매기고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등급 턱걸이에 있는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백분위 89%인 학생의 경우에는 단지 1% 차이로 2등급이 아니라 3등급으로 떨어지게 된다. 절대평가였다면 백분위 89% 학생과 백분위 90%인 학생이 똑같이 'A'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선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보다 입시 부담감을 덜어 준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입시라는 큰 틀에서 일부만 살펴봤을 때의 일이다.

상대평가가 시행되면서 외고, 자사고⁴⁾인 경우에는 중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다. 필자의 여동생은 역시 외고에 진학중인데 중학교 때 받던 내신 성적보다 훨씬 떨어져 고3이 되었을 때(현재 고2) 서울권 대학에 수시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 외고 경쟁률을 분석한 자료에서 강원외고를 제외한 전국 30개 외고의 경쟁률은 하락세를 보였다. (강원외고의 경우에도 모집인원이 줄어들어 경쟁률이 늘어났다.) 특히 여러 외고들 사이에서도 서울대 진학률이 높은 '대원외고'를 비롯하여 서울근교 사립외고들까지 경쟁률이 하락하는 추세이다.⁵⁾ 하지만 내신이 절대평가가 된다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것 예상된다.

문 민 식 (세종한솔고 교사)은 “특목고를 염두에 둔 준비생들은 이미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형성돼 있고 선행학습으로 고교수준의 성취수준을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특목고는 일반고보다 상대적으로 수행평가, 발표, 토론, 과제연구 등을 수행할 학습능력과 시간적 여건이 충분하다”며 “이 때문에 특목고·자사고 학생들이 내신 절대평가제에서 유리한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신 절대평가가 성적 부풀리기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조효완 회장(광운대 입학사정관 실장)은 “절대평가를 한다면 교사들은 제자들을 대학에 더 많이 보내기 위해 시험을 쉽게 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분명히 성적 부풀리기로 이어진다.”라고 강조했다. 문 민 식 회장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A등급을 받은 학생이 많아질 게 뻔하다”라고 지적했다.⁶⁾

이와 같이 교육담당자들은 내신의 절대평가는 특목고(외고, 과학고)와 자사고 학생들에게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외고, 자사고 경쟁률이 다시 올라간다는 의미는 불에 기름을 부어주듯이 입시 경쟁을 더욱 달아오르게 만들 것이다. (앞서 말한 ‘입시 경쟁’은 외고, 자사고 진학을 위한 경쟁을 의미한다.)

3) 서울신문, “영어 비중 하락... 최저기준 우선 채우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602023005&wlog_tag3=naver, (2017.6.2.최종검색).

4)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줄임말. 외국어고등학교인 경우 외국어(영어를 포함한 일본어, 중국어 등)수업을 위주로 진행한다.

5) 박대호, “[2016 외고] 31개교 1.94대1, 30개교 경쟁률 하락.. 강원1위 -모집인원 축소한 강원외고만 상승-”,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894>, (2017.6.3.최종검색).

6) 손형경, “고교 내신 절대평가, 교육계 -특목고·자사고 폐지 선행돼야 가능-”,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9/2017051902137.html, (2017.6.3.최종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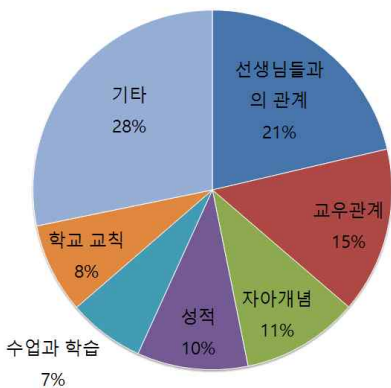
3. 개선방안

3.1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환경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지내는 학교생활은 어떨까? 실업계 고등학생이 아닌 이상 대부분 수업을 들으며 학교생활을 지낼 것이다. 수업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건 변하지 않을 사실이다. 하지만 수업 외에 다른 활동들도 학생들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스포츠 활동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교육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 당 4시간 이상 학교에서 스포츠 활동을 한 학생이 주 1시간 미만인 학생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포츠 활동을 한 학생들은 학교생활이 재미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긍정적인 효과로 수업 집중도와 학업 흥미를 꺾기도 하였다.⁷⁾ 스포츠 활동처럼 수업 외의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수업에 대한 흥미 역시 가지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체육 시간은 일주일에 한 시간 혹은 두 시간 정도 실시되고 3학년인 경우 체육시간에 교실에서 자습을 한다고 한다.⁸⁾ 학생들의 입시를 위해 체육시간이 교과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는 것이 과연 옳을까? 최소한의 체육활동을 보장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스포츠 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외관적인 부분(운동장, 급식, 교복 등)이 차지하는 것이 더 많아 보이지만 내관적인 부분이 끼치는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내관적인 부분 중 특히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자료가 있다.

만족도 요인



<그림 1> 학교생활만족도 요인

<그림 1>을 보면 여러 요인들 중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21%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뒤로 교우관계, 자아개념이 뒤 따르고 기타로는 수업과 학습,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의 진로를 상담하기도 하고 학생이 졸업 한 이후로도 계속 사제시간으로 지내게 된다. 이런 관계를 지니게 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행동과 생각은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교사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 자라나는 과정을 겪는데 그 예로 학생들은 교사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경우에는 벌을 받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상담을 잘 해 줄 때 학생들은 학교생활 만족도가 올라간다.⁹⁾

3.2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3.2.1 한국과 외국의 방과 후 활동차이

방과 후 활동은 본래 특기적성교육을 위해 1995년부터 운영되었고 2004년에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수준별 보충학습으로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¹⁰⁾ 필자가 고등학교 다닐 때(2010~2012년) 방과 후 학교 역시 대부분

7)최성수, “스포츠클럽 활동시간 많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 상승...평균은 79점”,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84436>, (2017.6.5.최종검색).

8)박승민, “고2 체육수업은 일주일에 고작 한 두 시간 뿐”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9095>(2017.6.10. 최종검색).

9)김미경,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그 결정요인」, 아주대학교, 2000년, 31-32쪽.

수업으로 진행 되었다. 교과서 대신 문제집을 풀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반 친구들 대부분이 방과 후 수업 때에는 줄거나 빨리 저녁시간만을 기다리며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였다. 정규수업을 집중하며 듣는 것도 힘든데 방과 후 수업을 들으면 수업에 집중하고 싶어도 자연스레 눈이 감기기 마련이다.

외국의 방과 후 학교 과정은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 외국 방과 후 학교 과정을 소개한 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는 방과 후 학교 때 전문교사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맡는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를 교과 활동으로 보지 않고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여기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예를 들자면 캘리포니아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관할 학교에서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축구부 활동은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 지역 축구장을 여러 군데 돌아가며 사용하는데 참여비용 역시 아주 가격이 싸다. 학교에서 방학기간 동안 악기 연주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에는 일, 이주 동안 집합교육을 진행한다.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을 가르쳐 주는 활동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단체 활동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한다. 이처럼 미국 외에도 일본, 영국 역시 방과 후 활동을 수업 보다는 특기나 적성을 키워주는 목적으로 운영한다.¹¹⁾

한국에서 진행되는 방과 후 수업과 외국에서 진행되는 방과 후 수업은 큰 차이를 갖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입시를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는 반면 외국의 경우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경험과 추억을 쌓게 해주는 활동을 주로 하여 학교생활 만족도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게 도와준다. 방과 후 활동 시간에 책으로 공부하여 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외국 방과 후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3.2.2 진로를 찾기 위한 수업

일반적인 수업으로 방과 후 학교 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학생진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방과 후 학교를 진행한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다. 안양 동안고등학교는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키워주기 위해서 미술교육을 중점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한지 10년 정도 되었다. 학교에서 미술교육이 진행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내에서 입소문이 퍼졌고 예술고 대신 동안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도 생겨났다.

동안고등학교의 경우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1년 동안 대략 1000시간 정도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미술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교육환경에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면서 학생들은 미술교육활동에 스스로 참여하며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동안고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우수 프로그램’에 뽑히기도 하였다.

화성 향남고등학교는 방과 후 학교 활동으로 ‘두드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학생과 교사가 가족처럼 지내며 학습의욕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공부습관을 알려주는 활동이다. 두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한 학생들의 모습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적어 대학진학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밖에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한 조를 구성해 학교 내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 활동을 실시하고 진로포트폴리오 작성, 학교 내 교육과정 동아리 운영같이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진로를 이끌어 주고 있다.¹²⁾

위의 두 사례를 소개한 기사를 통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얼마든지 방과 후 학교 시간을 학생들의 진로를 위한 활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교사의 열정과 학생들의 참여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을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얼마든지 학교마다 개성이 있는 방과 후 활동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 역시 학생들이 줄거나 집중 못하는 문제집 풀이나 교과 과목을 가르치는 것 보다는 학생들의 진로를 상담하거나 학생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방과 후 활동 시간에 선생님이라는 직업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방과 후 활동을 학생과 교사 서로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4. 결론

10) 두산백과, “방과 후 학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48044&cid=40942&categoryId=31724>, (2017.6.11. 최종검색).

11) 정광희, 「일반 고등학교와 자율형 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인식차이」, 계명대학교, 2012년, 18-20쪽.

12) 인천일보, “안양 동안고 수업에서 진로찾고 ... 배움이 행복한 학교 화성 향남고”,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64825>, (2017.6.11.최종검색).

곧 시행될 문. 이과 통합으로 교육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학생들의 진로와 학교생활만족을 위한 변화의 바람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백년하청(百年河淸)이라는 사자성어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이 글에서는 문. 이과 통합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생활에 대해 알아봤다.

본론 내용을 요약하면 2장에서는 문. 이과 통합이 입시경쟁을 더 달아오르게 할 것이라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특히 수능과 내신변화라는 입시를 구성하는 큰 틀이 바뀌는 것에 대해 알아봤다. 3장에서는 입시 경쟁을 줄이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학생들을 위한 학교생활을 알아봤다. 3.1 에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환경으로 스포츠와 선생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하였고 3.2 에서는 외국에서 하는 방과 후 활동을 알아보는 동시에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을 실시하는 학교를 살펴보았다. 방과 후 활동이 학생과 교사가 윈-윈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문. 이과 통합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를 찾는 활동은 무엇인지 알아 본 후 학교에서 실행한다면 우리나라 교육은 좋은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입시에 집중하느라 등교시간 때 영어 단어장을 살펴보기 위해 인상을 찌푸리는 고등학생들의 표정보다는 자신의 진로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즐거움에 웃는 표정의 모습들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참 고 문>

김 미 경,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그 결정요인」, 아주대학교, 2000년.
정 광 회, 「일반 고등학교와 자율형 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인식차이」, 계명대학교, 2012년.

<인터넷 자료>

경상일보, “중·고·대학생들 학교생활 만족도 절반도 안 돼”,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6078>, (2017.06.02.최종검색).
두산백과, “방과 후 학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48044&cid=40942&categoryId=31724>, (2017.6.11.최종검색).
박대호, “[2016 외교] 31개교 1.94대1, 30개교 경쟁률 하락.. 강원1위 -모집인원 축소한 강원외고만 상승-”,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894>, (2017.6.3.최종검색).
박승민, “고2 체육수업은 일주일에 고작 한 두 시간 뿐”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9095>, (2017.6.10.최종검색).
서울신문, “영어 비중 하락... 최저기준 우선 채우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602023005&wlog_tag3=naver, (2017.6.2.최종검색).
성광진, “EBS교재 문제풀이수업, 정상인가?”,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html?no=417753>, (2017.6.2.최종검색).
손형경, “고교 내신 절대평가, 교육계 -특목고·자사고 폐지 선행돼야 가능-”,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9/2017051902137.html, (2017.6.3.최종검색).
인천일보, “안양 동안고 수업에서 진로찾고 ... 배움이 행복한 학교 화성 향남고”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64825>, (2017.6.11.최종검색).
최성수, “스포츠클럽 활동시간 많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 상승...평균은 79점”,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84436>, (2017.6.5.최종검색).